

FRIALIT[®]-2 Implant를 이용한 상악 전치부 수복증례

김계순 *, 김유리, 조혜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상악 전치부는 안면 심미에서 중요한 부위이며,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시에 osseointegration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환자가 만족할 만한 심미성을 얻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치료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외상으로 인한 전치부 치아상실은 순측 치조골 소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임플란트의 식립만으로 치료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치부의 임플란트는 적절한 골조직의 지지를 바탕으로 임플란트의 직경, 식립위치, 식립각도, 연조직의 조화가 뒷받침되어야 최적의 심미성을 이룰 수 있다.

FRIALIT -2 implant는 1974년에 개발되었으며, Stepped scREW형으로, 상악 전치부에서 골천공을 방지하고, 인접치 치근의 손상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치경부 직경이 다양하여 자연치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함으로써 바람직한 emergence profile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implant와 abutment가 internal hex로 연결되어 보다 심미적이며, 다양한 abutment를 사용할 수 있어 보철적으로 유리하다.

본 증례에서는 외상으로 인한 상악 전치부 치아상실 환자에서 즉시형과 지연형으로 FRIALIT -2 implant를 식립하고 implant 직경과 위치에 따라 abutment를 선택하여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한개 또는 두개의 치아상실 환자에서 치료기간동안 임시치관의 장착 및 조절, 연조직이식술을 이용하여 심미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